

▶ 달러/원 주간 전망

• 1300원대로 빠르게 복귀한 환율... 반기말 수급과 변동성 경계

서울, 6월2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반기말을 맞아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0-1,320원이다.

끈적한 고물가 상황 속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위험선호 심리가 둔화되고 있다. 이전과 같은 통화긴축 공포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급랭하는 건 아니더라도,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부담은 재차 시장심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근의 국내외 증시가 차익실현 흐름이 반기말까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 수급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금주 환율 움직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공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집했던 외인 주식 매수 강도는 6월 들어 크게 둔화됐고, 이와 함께 원화 강세도 막혔다. 분기말 시장 상황 따라 증시 관련 차익매물이 추가로 나온다면 달러/원 1,300원대에서 상승폭을 넓힐 수도 있겠다.

부정적인 중국 경제전망이 위안 약세를 자극하면서 역외 달러/위안은 작년 11월 말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외인 주식 자금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환류 수급 등에 원화 강세를 보일 때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정도는 크게 떨어졌지만, 원화가 현 시점에서 약세 탄성을 높인다면 위안화의 시장 재료 영향력은 다시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기말 네고와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환전 관련 수급이 환율 상단 저항력을 제공할지가 관건이다.

금주 주목할 국내외 경제지표는 미국 5월 신규주택판매, 미국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중국 6월 국가통계국 PMI,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미국 5월 PCE 물가 등이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ECB 연례 포럼 패널토론과 금융 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일정으로는 5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고, 1분기 외환당국 시장안정조치 내역도 공개된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 한일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한일 통화스왑이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6월26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07:30)
- ⊙ 금융위원회: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14:00)

6월27일(화)

-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00)
- ⊙ 한국은행: 2022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 ⊙ 한국은행: 2023년 11차(6.8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6월28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8:00)
- ⊙ 한국은행: 2023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통계청: 2023년 4월 인구동향·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12:00)

6월29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기획재정부: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5:00)
- ⊙ 한국은행: 2023년 7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 (29~30일, 일본 도쿄)
- ⊙ 기획재정부: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6월30일(금)

- ⊙ 통계청: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배포시)
- ⊙ 한국은행: 2023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한국은행: 2023년 1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 (배포시)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 (29~30일, 일본 도쿄)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16: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6월26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6월26일	23:30	미국	달러스 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6월		-29.10
6월27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5월		1.491M
6월27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5월	-1.0%	1.1%
6월27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4월		0.6%
6월27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MM SA	4월	0.3%	0.5%
6월27일	23:00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6월	103.7	102.3
6월27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5월	0.670M	0.683M
6월28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5월		-20.6%
6월28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 증가율	5월	1.5%	1.9%
6월28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5월		2.5%
6월28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6월19일 주간		209.8
6월28일	21:30	미국	도매재고 잠정치	5월		-0.1%
6월28일	21:30	미국	소매재고 잠정치	5월		-0.2%
6월29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5월	5.4%	5.0%
6월29일	14:00	일본	소비자 신뢰지수	6월		36.0
6월29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6월		0.19
6월29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6월	96.0	96.5
6월29일	18:00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	6월	-16.1	-16.1
6월29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19일 주간		264k
6월29일	21:30	미국	GDP 확정치	1분기	1.4%	1.3%
6월29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5월	0.2%	0.0%
6월30일	08:30	일본	도쿄 CPI	6월		3.2%
6월30일	08:30	일본	실업률	5월	2.6%	2.6%
6월30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5월	-1.0%	0.7%
6월30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6월		48.8
6월30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6월		54.5
6월30일	14:00	일본	건설주문 YY	5월		16.2%
6월30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5월	-2.2%	-11.9%
6월30일	18:00	유로존	CPI NSA	6월		123.16
6월30일	18:00	유로존	실업률	5월	6.5%	6.5%
6월30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5월	0.3%	0.4%
6월30일	21:30	미국	소비 MM	5월	0.2%	0.8%
6월30일	21: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M	5월	0.4%	0.4%
6월30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6월	44.0	40.4
6월30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6월	63.9	63.9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6월26일(월)

- ⊙ 일본은행(BOJ) 6월15-16일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8시5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CB 연례 포럼 오프닝 리셉션 환영사 (27일 오전 2시30분)

6월27일(화)

-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CB 연례 포럼 개회사 (오후 4시)

6월28일(수)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라가르드 ECB 총재·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등 ECB 연례 포럼 패널토론 참석 (오후 9시30분)

6월29일(목)

- ⊙ 파월 연준 의장·파블로 에르난데스 데코스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 금융 안정 컨퍼런스 참석 (오후 3시3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CB 연례 포럼 폐회사 (30일 0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아일랜드 투자 매니저협회 연례 만찬서 연설 (30일 오전 4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바닥에서 영웅으로

2023년은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세계 경제의 탄력,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으리라는 안도감으로 시작했지만, 상반기는 미국 은행권 위기, 크레디트스위스의 붕괴, 금리 인상 전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길게 느껴진 6개월이었다.

일본 증시와 유럽 명품주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도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하반기 10%가 하락했던 대형 기술주 주가는 인공지능(AI)이 핫해지면서 올 상반기 75% 상승해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대형 기술주에 필적할 만한 수익을 낸 유일한 자산은 73%가 상승한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 역시 지난해 하반기에는 20%가 하락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대형 기술주와 비트코인이 올해의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 경제지표

30일 발표될 중국의 6월 제조업 지표가 이번주 메인 이벤트지만, 부진한 회복세가 한번 더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 인하에 이어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하는 등 단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부양책은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악재는 당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을 높여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인내심은 줄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 미국 주요 경제지표

미국 경제는 상반기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나 탄력적인지는 이번 주 발표될 여러 지표에서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27일 발표되는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5월에 기록한 6개월 만의 최저치에서 반등이 예상된다.

같은 날에는 4월 케이스-실러 전국주택가격지수가, 30일에는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예정돼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PCE물가지수를 주시하고 있어, 7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ECB 금리 전망

26일부터 28일까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최하는 연례 포럼이 개최된다.

물론 올해의 어젠다는 인플레이션이다.

최근 정책회의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금리 전망에 대한 단서를 제

시할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비둘기파인 야니스 스투나라스 정책이사마저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ECB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ECB가 7월과 10월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고 베팅을 확대하고 있다.

⊙ 스웨덴의 난제

이번 주 정책회의를 갖는 스웨덴 중앙은행은 통화 약세로 더 악화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과 매파적 스탠스 유지가 최선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웨덴 중앙은행은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라는 또 하나의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스웨덴 은행들의 부동산 익스포저도 상당하다.

부동산 문제가 경제에 미칠 영향 우려로 크로나 가치가 유로 대비 사상 최저 수준에 거래되는 등 통화 가치와 금리, 부동산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금리 외에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 많은 이들은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을 고려하기에 앞서 일단 구두개입을 시도하리라고 예상한다.